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와 고귀한 인류의 존엄성

- 교황 레오 14세 회칙의 개신교 법윤리적 조명

김성수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I. 들어가는 말

II. 교황 회칙의 윤리적 성격

1. 교황 회칙과 사회 문제
2. 윤리적 원리와 가치

III.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

1. 인간 존엄성의 위협
2. 진리, 노동, 자유의 위축
3. 권력의 문화와 사랑의 문명

IV. 교황 회칙과 개신교 법윤리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5.02>

• ABSTRACT •

**The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Dignity of Magnifica
Humanitas: Protestant Legal Ethical Reflections on the Pope Leo XIV's
Encyclical**

Prof. by Special Appointment, Kim, Sungsoo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key points of Pope Leo XIV's encyclical "Magnifica humanitas", which addresse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ow to overcome them.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perspective of the Protestant Church and its legal ethical approaches. Humans are different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e dignified beings. However, AI technology threatens this dignity with regard to truth, work, and freedom. Therefore, personal and communal efforts to uphold human dignity are necessary.

The Protestant Church must address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using its own insights and methods. The church must reflect seriously on human sinfulness and understand human dignity based on the image of God and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Furthermore, it should avoid an overly optimistic view of humanity and acknowledge the impact of law. Specifically, the church should determine the direction of legal improvement through love and the Kingdom of God. With these unique perspectives and efforts, the Protestant Church can contribute to preserving human dignity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issues.

Key words: Leo XIV, Papal Encyclical, Human Dignity, Artificial Intelligence, Christian Ethics, Legal Ethics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해왔다. 그런 점에서 기술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었다.¹⁾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미 공고화되었던 이 인식은 중세 사회에서도 유효하였다. 그러나 근대가 되어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이것이 기술에 접목됨으로써 인간을 기술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점차 약화되었다. 그 결과 목적 없는 발전이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 고도화되었고, 그 접근 가능성이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기술을 이해하고,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개인과 집단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관료주의(Technokratie)가 부상하였다.²⁾ 이를 통해 특정 기술과 관련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옳고, 선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 인식은 1980년대 이후 정치, 경제 분야에서 권력을 가진 소수가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점차 영향력을 상실하였다.³⁾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인식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소수의 기술 기업과 플랫폼 기업 주도로 사회 구조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⁴⁾ 그러나 기술관료주의의 틀 안에서 인간은 동등한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고, 도구화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 존엄성이 경시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 Martin Honecker, *Grundriß der Sozialethik*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547.

2) Martin Honecker, *Grundriß der Sozialethik*, 547.

3) Michael Sandel, *The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와이즈베리, 2020), 57-58.

4) Alexander Karp, Nicholas Zamiska, *The Technological Republic*, 빅데이터닥터 역, 『기술공화국 선언』 (서울: 지식노마드, 2025), 220, 226.

이로 인해 기술관료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층적인 문제 진단과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것은 공적 의사소통을 통해 구체화된다.

교회도 고유의 현실 해석을 토대로 공론장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여기에 교황 레오 14세가 임기 일주년인 2026년 5월 25일 발표한 그의 첫 번째 회칙 『고귀한 인류』(Magnifica humanitas)가 도움을 줄 수 있다.⁵⁾ 레오 14세는 이 회칙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를 공식화하고, 인간 존엄성 보호의 시급성을 힘주어 강조하였다. 개신교회는 회칙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인식을 정립하게 된다. 그리고 회칙과의 신학적 차이의 인식을 통해 개신교회의 고유한 문제 의식이 체계화된다. 또한 회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개신교회의 법윤리적 성찰의 필요성이 표면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레오 14세의 회칙 『고귀한 인류』에 나타난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와 그 극복 방안을 명료화하고, 그와 차별화된 개신교회의 문제 인식과 법윤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레오 14세가 영향을 받은 기존 교황 회칙들의 윤리적 사고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레오 14세가 주목한 인간 존엄성, 진리, 노동, 자유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그가 강조한 사랑의 문명이 지닌 의미를 밝힐 것이다. 이 토대 위에서 회칙의 내용과 차별화되는 개신교회의 문제 인식과 법윤리의 중요성을 논구할 것이다.

5) 본 연구는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 『고귀한 인류』의 독일어 번역본을 주본으로 삼고 있다. 이 번역본은 교황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https://www.vatican.va/content/leo-xiv/de/encyclicals/documents/20260515-magnifica-humanitas.html>.

II. 교황 회칙의 윤리적 성격

1. 교황 회칙과 사회 문제

교황 회칙은 사회 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가톨릭 교인들의 실천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⁶⁾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가톨릭 교인들이 순명해야 할 규범으로 이해된다.⁷⁾ 이에 따라 회칙의 내용은 구속력을 지닌 사회 교리로 간주된다.⁸⁾ 가톨릭교회의 윤리적 사고는 근본적으로 자연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칙의 내용은 사회철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⁹⁾

회칙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본격적으로 표명한 교황은 레오 13세이다. 그는 산업혁명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 직면하여 1891년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공표하였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계몽주의를 반기독교적 배경 속에 혁명을 추동한 사조로 이해하였다. 그와 결부된 것으로 인식되던 자유 개념 역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의 근간인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톨릭교회 안에 존재하였다.¹⁰⁾ 당시 사회 문제가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던 레오 13세는 노동의 가치를 부각하고, 그 증진을 위해 임금 등 노동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¹¹⁾

6) 교황 회칙의 흐름과 특징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형민, 『하나님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현대인권신학의 동향과 전망』 (경기: 북코리아, 2011), 253-264.

7)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79.

8) 사회 교리라는 명칭은 1950년 비오 12세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회칙을 바탕으로 사회 교리의 내용이 체계화되었다.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29항.

9) Martin Honecker, *Einführung in die theologische Ethik. Grundlagen und Grundbegriffe* (Berlin: Walter de Gruyter, 1990), 338.

10) Martin Honecker, *Einführung in die theologische Ethik*, 345.

그러나 레오 13세는 사회주의를 사회 문제의 해법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다. 계급투쟁을 통한 인위적인 변화 시도는 부적절한 것이다. 특히 사유 재산의 보장은 필요하고, 중요하다.¹²⁾ 그 근거는 자유 개념이 아닌 인간 존엄성 개념과 자연법이다. 재산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축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사유 재산의 보장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지상의 재화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인 것이다.¹³⁾ 사유 재산은 중요하지만, 지상의 재화는 근본적으로 공동의 것이라는 인식이 더 우선성을 지닌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협력을 통해 공동선을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¹⁴⁾

후임 교황 비오 11세 역시 경제 문제에 주목하였다. 1920년대 발생한 경제 위기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한 그는 1931년 공표한 회칙을 통해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가톨릭 교인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이 회칙은 『새로운 사태』의 주요 노선의 수용을 통해 경제 문제를 조망하고, 그 사십 년이 지난 뒤 발표됐다는 점에서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으로 명명되었다. 비오 11세는 직면한 경제 위기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교회와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였다. 사회 영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조화 관계의 형성은 보조성(Subsidiarität) 원리의 구현을 통해 촉진된다.¹⁵⁾ 이 원리는 개인, 가정, 지역 공동체 등이 공동 책임의 인식 속에 공동선을 위해 고유

11)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24-25, 35-38.

12)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 11-12.

13)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 13.

14)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 29.

15) 비오 11세, “사십주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84.

기능을 다하고, 국가는 이 노력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 영역의 능동적인 참여를 증진하지만, 국가의 방관과 방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¹⁶⁾

요한 23세는 1961년 발표한 회칙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을 통해 사회 문제 극복을 위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진리, 정의, 사랑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⁷⁾ 여기서 더 나아가 1963년 발표된 그의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는 진리, 정의, 사랑에 더하여 자유가 가톨릭교회가 주목해야 할 핵심 가치라는 점을 언급하였다.¹⁸⁾ 여기서 자유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 개념과 마찬가지로 계몽주의와 연결되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인권은 평화질서의 핵심으로 이해됨으로써 그 가치가 격상되었다.¹⁹⁾

바오로 6세가 1967년 발표한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은 제3세계 국가들의 개발이 국제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 직면하여 발전이 평화의 전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⁰⁾ 이 시기까지의 회칙은 주로 자연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회칙 안에 사랑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회칙의 내용은 사회신학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²¹⁾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16) Charles Curran, *Catholic Social Teaching 1891-Present*, 이동화 역, 『가톨릭 사회적 가르침 1891-현재』 (서울: 분도출판사, 2022), 217-218.

17) 요한 23세, “어머니요 스승,”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225.

18)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256.

19)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 262-263.

20)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443.

21) Martin Honecker, *Einführung in die theologische Ethik*, 352.

것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을 공표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재화의 보편적 사용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²²⁾ 그리고 1987년 발표된 그의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은 발전의 현실화에 기여하는 연대성의 가치를 강조하였다.²³⁾ 또한 『새로운 사태』 이후 한 세기가 지난 1991년 공표된 그의 『백주년』(Centesimus annus)은 인간 소외를 문제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표면화하였다.²⁴⁾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사랑의 문명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⁵⁾ 베네딕토 16세는 2009년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을 통해 지구화 상황 속 발전의 의미를 밝히고, 사랑의 가치를 재조명하였다.²⁶⁾ 프란치스코는 2015년 발표한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통해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사랑의 필요성을 주제화하기도 하였다.²⁷⁾

레오 14세는 기존 교황 회칙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현존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생동력을 지녀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²⁸⁾ 그가 주목한 문제는 과학 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의 회칙 『고귀한 인류』는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를 밝히고, 가톨릭 교인들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22)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606-608.

23) 요한 바오로 2세, “사회적 관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805-806.

24) 요한 바오로 2세, “백주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882-883, 890-891.

25) 연대성은 사랑의 문명을 구체화하는 개념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백주년,” 843.

26)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31-32, 102-103.

27)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162-165.

28)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3항.

두었다.

2. 윤리적 원리와 가치

레오 14세는 기존 교황 회칙들을 통해 체계화된 윤리적 원리를 중시하였다.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보조성, 연대성이 이에 속한다. 이 원리들은 인격주의 원리, 곧, 인간 존엄성 개념을 토대로 두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다.²⁹⁾ 이에 근거하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존엄하다.³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인간의 높은 가치를 보증한다. 비록 죄의 비극이 발생했지만,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존엄하다는 평가는 인간에게 생득적으로 부여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지속성을 지닌다.³¹⁾ 이에 따라 그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형식적 틀이다.³²⁾ 특히 인간의 출생, 사망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생명권의 보장이 중요하다.³³⁾

인간 존엄성은 공동선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증진된다.³⁴⁾ 공동선은 개인에게 좋은 것 혹은 이익이 되는 것의 총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에 좋은 것 혹은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공동선은 모든 인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그 구축과 보전을 위한 노력은 보편적 과제에 해당한다. 이로부터 공동선을 위한 윤리적 노력의 당위

29)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48항.

30)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52항.

31)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53항.

32)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54항.

33)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56항.

34)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60항.

성이 도출된다.³⁵⁾ 사회 구성원의 상호 작용, 상호 영향, 상호 노력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³⁶⁾ 공동선의 추구는 재화의 보편적 사용을 통해 구체화된다. 하나님은 지상의 재화를 인간에게 선사하셨다.³⁷⁾ 재화의 사용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해당한다. 현존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재화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포함한다. 사유 재산을 보장하는 소유권이 존재하지만, 재화의 보편적 목적보다 열위하다.³⁸⁾ 이러한 측면에서 재화의 사용을 위한 참여와 접근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선과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구현은 보조성의 원리를 통해 현실화된다. 개인, 가정,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등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재 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위한 활동에 진력하고, 국가는 이를 보조하고, 보완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고, 그 영향력 증대를 권장하고, 촉진해야 한다.³⁹⁾ 그런 점에서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보조성의 원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기 때문에 사회 안에 공동 책임의 문화가 형성되는 데 기여한다.⁴⁰⁾ 이 원리는 연대성의 원리와 결합되어 있다. 연대성은 모든 인간이 결속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⁴¹⁾ 이는 개인, 공동체, 민족 간의 상호 의존 질서가 구축되고, 기능하는 것을 요청하고, 공동선과 함께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구현하는 태도를 촉구한다.⁴²⁾

35)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60항.

36)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61항.

37)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65항.

38)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66항.

39)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68항.

40)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70항.

41)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73항.

정의는 연대성을 구체화하는 원리이다. 정의의 핵심은 약자의 참여와 접근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이 토대 위에서 그 삶의 개선을 추구하였다. 사랑 속에서 정의가 구체화된 것이다.⁴²⁾ 이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원칙인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의 추구가 필요하다.⁴⁴⁾ 이것은 전쟁, 식민주의, 차별, 폭력, 착취와 같은 부정의의 극복 노력⁴⁵⁾과 함께 약자의 참여와 접근 가능성의 증진 노력을 통해 구체화된다.

레오 14세는 기존 사회 교리의 윤리적 원리 목록에 정의를 추가하였다. 정의는 본래 윤리적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긍정적 방식으로 추동하는 개념인 가치에 속했지만, 이제 윤리적 원리로 기능하게 되었다. 레오 14세는 인간의 보호를 위해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보조성, 연대성, 정의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⁴⁶⁾ 그리고 정의 대신 노동을 가치의 일종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진리, 노동, 자유, 사랑이 근본 가치로 규정되었다. 이 가치들은 인간의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⁴⁷⁾

진리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이다. 그 중요성의 인식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중 매체와 경제 영역에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투명성과 정직성이 증진되어야 한다.⁴⁸⁾ 또한 가톨릭교회 안에서 노동은

42)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75항.

43)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77항.

44)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78항.

45)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79항.

46) 레오 14세는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보조성, 연대성, 정의가 교회 안에서 구현되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86항-89항.

47)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165.

48)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166-167.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응답으로 이해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⁹⁾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은 인간의 위상을 상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⁵⁰⁾ 그리고 자유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인간의 특성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주의적으로 사용되거나 무절제하게 사용될 수 없다. 자유는 공동선과 공공질서를 감안하여 책임 있게 행사되어야 한다.⁵¹⁾ 이와 같은 진리, 노동, 자유의 가치는 사랑을 통해 활성화된다. 특히 가난한 이의 삶의 개선을 위해 빈곤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사랑의 범주에 포함된다.⁵²⁾ 레오 14세는 이와 같은 원리와 가치를 기초로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명하였다.

III.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

1. 인간 존엄성의 위협

레오 14세는 다른 과학 기술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에게 혜택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 기술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경시될 수 있다.⁵³⁾ 그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명료화함으로서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부각하였다. 인간은 기쁨, 고통,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공지능은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그것을 모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⁵⁴⁾ 그래서 인간이 지니

49)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48항.

50)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49항.

51)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167-168.

52)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172-173.

53)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10항.

고 있는 공감 능력은 인공지능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은 인간이 소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윤리적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선악을 스스로 구분하지 못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다.⁵⁵⁾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은 감정과 양심을 소유한 존재로서 고유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면 짧은 시간에 수준 높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은 간단하고, 용이하다.⁵⁶⁾ 레오 14세는 이와 같은 현상이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은 인간의 판단 능력과 창의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⁵⁷⁾ 인간의 고유 역량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은 인간 관계를 약화시킨다. 인공지능과의 소통에 만족하며, 타자와의 대화와 만남을 불필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⁵⁸⁾ 이것은 타자와의 공감, 우정, 사랑의 경험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존엄성이 경시되는 사회 구조를 공고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⁵⁹⁾ 레오 14세는 앞서 설명했던 기술관료주의를 문제시하였다. 그 위험성은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미 포착하여 주제화한 바 있다.⁶⁰⁾ 기술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의 개인과 집단이 권력을 누리는 기술관료주의의 구조 속에서 일반 시민은 존엄과 가치의 경시 속에

54)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99항.

55)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99항.

56)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00항.

57)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00항.

58)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00항.

59) 레오 14세는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환경 파괴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01항.

60)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88.

생활하게 된다. 레오 14세는 기술관료주의가 인공지능 기술과 착종되어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기술 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권력을 차지하고,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⁶¹⁾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체계의 기능을 위한 요소로 전락한 것이다.⁶²⁾

그런 점에서 권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공적 재화에 해당한다.⁶³⁾ 그에 대한 참여와 접근 가능성의 보장은 공동선의 구현⁶⁴⁾이자 정의의 실현을 의미한다.⁶⁵⁾ 이에 대해 보조성 원리의 현실화 차원에서 권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관찰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개인과 다양한 공동체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⁶⁶⁾ 이것은 기술 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인간과 연대하는 일이기도 하다.⁶⁷⁾ 이는 사랑을 구현하는 일에 해당한다. 인공지능과 달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와 같은 염려와 돌봄의 구체화를 통해 연대에 힘써야 한다.⁶⁸⁾

레오 14세는 인간 향상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트랜스휴먼은 기술을 통한 인간 향상을 요체로 삼고 있는 개념이다.⁶⁹⁾ 포스트휴먼은 인간, 기계, 환경을 결속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⁷⁰⁾ 이 두 개념의 공통점은 인간을 물질로 이해하고, 기술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61)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92항.

62)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96항.

63)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08항.

64)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67항.

65)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80항.

66)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71항, 108항.

67)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76항.

68)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14항.

69)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16항.

70)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16항.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유용성과 가치에 따라 판단되고, 그에 따라 특정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평가된다.⁷¹⁾ 인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 기술은 또한 사랑의 실천을 저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질병과 노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⁷²⁾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제한점은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기 약점에 대한 인정과 인식은 타자의 약점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이어진다. 그러나 인간 향상 기술을 통해 약점이 극복된 상태에서 타자의 약점에 대한 인식은 이뤄지기 어렵다.⁷³⁾ 그런 점에서 인간의 제한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랑 실천의 전제에 해당한다. 이것은 사회가 비인간화되지 않는 데 기여한다.⁷⁴⁾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 관계를 악화하고, 사랑의 실천을 저해하는 기술 발전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⁷⁵⁾

2. 진리, 노동, 자유의 위축

레오 14세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윤리적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선적으로 진리의 확산을 저해한다. 이것은 특히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한다.⁷⁶⁾ 이는 편향된 시각의 정립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공론장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사

71)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17항.

72)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18항.

73)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19항.

74)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21항.

75)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26항.

76)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32항.

회 안의 신뢰도 약화된다.⁷⁷⁾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진리에 대한 관심과 그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은 더 나아가 전체주의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심과 노력은 경시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⁷⁸⁾ 특히 공적 의사소통의 증진을 위해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를 규율할 수 있는 공적 차원의 규범이 형성되어야 한다.⁷⁹⁾ 그리고 그에 대한 관찰과 검토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디지털 기술의 비판적 사용을 위한 교육이 성사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낳고 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자를 도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역량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⁸⁰⁾ 여기서 더 나아가 이 기술은 노동 기회의 상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차원의 문제를 야기한다.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임시직을 증가시키며, 경제적 불평등을 촉진한다.⁸¹⁾ 이에 따라 고임금을 받는 소수와 저임금을 받는 다수로 이뤄진 불균형한 사회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 기회의 상실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가져온다. 노동은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인간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책임감의 습득을 돕는다.⁸²⁾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 기회의 상실은 특히 사회와 관련된 책임 의식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런 점에서 노동 기회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재교육과 공동의사결정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 가능성을 보전하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77)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32항.

78)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34항.

79)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37항.

80)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50항.

81)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51항.

82)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67항.

삼는 기업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⁸³⁾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기도 한다. 관련 기기의 생산을 위해 위협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위험 물질을 다루는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⁸⁴⁾ 이는 많은 경우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 이때 미성년자가 그 대상이 되기도 한다.⁸⁵⁾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의 보호와 강제 노동의 방지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의 윤리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하고, 구조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 희생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⁸⁶⁾

3. 권력의 문화와 사랑의 문명

인공지능 기술은 무기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간의 통제 없이 스스로 목표물을 설정한 뒤 공격하는 자율살상무기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무기 개발은 전쟁 개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방어 목적을 가지고 있고, 최후의 수단일 경우 윤리적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자율살상무기는 방어 도구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 아닌 우선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율살상무기는 전쟁을 억제하지 못한다. 오히려 단기전에 대한 기대를 가져옴으로써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⁸⁷⁾ 그런 점에서 자율살상무기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⁸⁸⁾

83)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56항.

84)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73항.

85)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73항.

86)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79항.

87)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98항.

이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양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선악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원활하지 않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이것은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⁸⁹⁾ 이에 따라 인공지능에게 공격 권한을 양도하지 않고, 인간이 그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공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무기 개발이 제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⁹⁰⁾

이와 같은 무기 개발의 배경에 권력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 문화의 확산을 통해 적과 동지의 구분이 강조되고, 자국우선주의가 우선적 가치로 이해되고 있다.⁹¹⁾ 이에 따라 국제법의 위상이 격하되고, 다자주의의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다.⁹²⁾ 여기서 더 나아가 전쟁이 국제 정치의 일반적인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다.⁹³⁾ 고도화된 무기 개발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랑의 문명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특히 연대성의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⁹⁴⁾ 이를 구체화하는 차원⁹⁵⁾에서 정의 구현을 통한 평화 증진이 추구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국제 정치가 부각되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국가 간, 종교 간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88)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97항.

89)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98항.

90)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200항.

91)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92항.

92)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201항.

93)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90항.

94)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185항, 187항.

95)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 214항-219항.

대화 가운데 진리의 표현과 평화의 표현이 이뤄짐으로써 언어 표현에서 폭력이 제거되는 것도 중요하다. 언어 표현의 무장해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랑의 문명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통해 평화가 구현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무기 개발이 지양될 수 있다.

IV. 교황 회칙과 개신교 법윤리

레오 14세는 회칙을 통해 인간이 인공지능과 차이를 지닌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명료화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진리, 노동, 자유의 위축을 통해 경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대응을 위해 보조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이 지닌 독특성과 가치를 부각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그 위협 가능성을 밝힌 회칙은 이 기술이 지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 극복에 힘써야 한다는 인식을 확립하게 한다.⁹⁶⁾

그러나 회칙의 내용은 개신교 신앙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차이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초하고 있다. 가톨릭 신학은 인간의 타락을 죄의 비극으로 이해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⁹⁷⁾ 이와 달리 개신교 신학은 인간의 죄성을 크게 부각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나타낸다. 가톨릭 신학은 그 근거를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데서 찾는다. 개신교 신학

96) 교황 회칙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 『고귀한 인류』의 의의와 한계,” 『좋은 나무』 2026년 7월 7일 게시, <https://cemk.org/45837/> (2026년 7월 8일 검색).

97) Traugott Jähnichen, Wolfgang Maaser, *Die Ethik Martin Luthers* (Bielefeld: Luther Verlag, 2017), 34-37.

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거를 하나님 형상성뿐만 아니라 창의론에 두고 있다.⁹⁸⁾ 창의론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을 요체로 삼고 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정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경시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개신교 전통에서 인간 존엄성 개념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어 있다.

회칙은 개인과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인간의 행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기저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개신교 신학과 차이를 형성한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타락한 인간은 의지의 부자유 속에 살아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⁹⁹⁾ 인간은 하나님 혹은 악마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이에 따라 악마의 영향 속에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¹⁰⁰⁾ 이러한 실존적 한계를 강조하는 인간관과 대비되게 회칙은 개인과 공동체의 영향력을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을 좀 더 낙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톨릭 신학은 타락 이후에도 이성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⁰¹⁾ 그에 반해 개신교 신학은 타락을 통해 이성인 변질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¹⁰²⁾ 타락한 인간이 왜곡된 이성을 활용

98)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274-275. 인간 존엄성에 관한 개신교 신학적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품위 있는 사회와 노인의 존엄성: 노인 빈곤의 극복을 위한 교회의 법윤리적 과제,” 『선교와 신학』 62(2024), 19-23.

99) Martin Luther, “Disputatio de homine,” in *Martin Luther Lateinisch-Deutsche Studienausgabe. Bd.1*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6), 667.

100) 루터의 의지 부자유 개념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볼프강 후버의 의사소통적 자유의 개념과 윤리적 함의,” 『인문사회』 21) 12/1(2021), 2774.

101) Martin Luther, “Disputatio de homine,” 667.

102)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128.

함으로써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¹⁰³⁾ 이것은 인간의 덕스러운 행동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제도와 구조에 의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법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신학적 근거를 루터에게서 찾을 수 있다. 루터는 율법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이 벌이는 악행과 범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¹⁰⁴⁾ 이와 같은 시민적 기능은 실정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법은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는 도구이다. 이처럼 법은 타락한 인간이 왜곡된 이성을 통해 악행을 벌이고, 악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능은 인간 존엄성을 경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인간은 이 기술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악한 것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⁵⁾ 이러한 측면에서 법에 대한 관심과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에 반해 회칙은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와 구조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주로 덕론에 근거하여 각 사회 질서의 고유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개신교 법윤리는 가톨릭교회의 그것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가톨릭 신학은 자연과 은총의 조화를 강조한다. 자연법이 근간을 형성하고, 회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랑은 그것을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법은 영원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요체가 실정법에 투영되는 것이 중요하다.¹⁰⁶⁾ 이와 달리 개신교 신학은 사랑과 복음이 실정법에 영향을 주고,

103) 루터의 이성 이해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볼프강 후버의 세계시민윤리,” 『기독교철학』 42(2025), 72.

104)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128.

105)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일개신교협의회가 발간한 디지털백서는 인간의 죄와 결부된 기술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Freiheit digital. Die Zehn Gebote in Zeiten des digitalen Wandel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21), 50.

106) Charles Curran, *Catholic Social Teaching 1891-Present*, 225.

그에 반영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¹⁰⁷⁾ 이에 따라 가톨릭교회 안에서도 강조되는 빈곤층의 삶의 개선과 인간 존엄성의 보호가 더 부각된 형태로 법의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 이해된다.¹⁰⁸⁾

또한 자연법을 중시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가톨릭 신학은 현존 질서에 주목하는 데 반해 개신교 신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¹⁰⁹⁾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 불완전한 현존 질서가 최대한 그 정의와 평화의 상태에 상응하도록 법이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¹¹⁰⁾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정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현실은 법의 도움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V. 나가는 말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삶에 기여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기술관료주의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레오 14세는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극복을 위한 가톨릭 교인들의 실천 방향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이 관심이 반영된 그의 첫 번째 회칙 『고귀한 인류』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정식 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각하였다. 이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인간 존엄성의 경시 가능성이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진리, 노동, 자유의 위축을 심화할 수 있는

107)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251-252.

108)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의 개신교적 이해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볼프강 후버의 의사소통적 자유의 개념과 윤리적 함의,” 2776-2777.

109)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201.

110) Wolfgang Huber, “Rechtsethik,” in *Handbuch der evangelischen Ethik* (München: C. H. Beck, 2015), 137. 하나님 나라의 법윤리적 함의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품위 있는 사회와 노인의 존엄성: 노인 빈곤의 극복을 위한 교회의 법윤리적 과제,” 26.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는 그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 이 회칙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교화하였고, 그 문제로부터 인간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회칙의 기본 인식은 개신교 신학과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차별점이 명료화됨으로써 개신교회만의 고유 관점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의 죄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의된 존재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인식이 부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활동만으로 인공지능이 야기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 인식의 경계 속에 덕의 함양뿐만 아니라 법을 통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사랑과 복음의 빛 안에서 빈곤층의 삶의 개선과 인간 존엄성의 증진이 이뤄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상응하는 정의와 평화가 구현될 수 있는 법의 개선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개신교회는 이와 같은 고유의 인식과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가 심화된 상황 속에서 고귀한 인류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수. “볼프강 후버의 의사소통적 자유의 개념과 윤리적 함의.” 『인문사회 21』 12/1(2021), 2771-2780.
- _____. “품위 있는 사회와 노인의 존엄성: 노인 빈곤의 극복을 위한 교회의 법윤리적 과제.” 『선교와 신학』 62(2024), 7-32.
- _____. “볼프강 후버의 세계시민윤리.” 『기독교철학』 42(2025), 65-89.
- _____.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 『고귀한 인류』의 의의와 한계.” 『좋은 나무』 2026년 7월 7일 게시. <https://cemk.org/45837/> (2026년 7월 8일 검색).
- 김형민. 『하나님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현대인권신학의 동향과 전망』. 경기: 북코리아, 2011.
-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7-49.
- 레오 14세. 『고귀한 인류』(독일어 번역본). <https://www.vatican.va/content/leoxiv/de/encyclicals/documents/20260515-magnifica-humanitas.html>.
-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401-449.
- 베네딕토 16세. 『진리 안의 사랑』.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비오 11세. “사십주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51-112.
- 요한 바오로 2세. “노동하는 인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585-650.
- _____. “사회적 관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755-824.
- _____. “백주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825-907.
- 요한 23세. “어머니요 스승.”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161-240.
- _____. “지상의 평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와 사회』. 서울: 한국천주교

- 중앙협의회, 2003, 241-290.
-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
- Curran, Charles. *Catholic Social Teaching 1891-Present*. 이동화 역. 『가톨릭 사회적 가르침 1891-현재』. 서울: 분도출판사, 2022.
-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Freiheit digital. Die Zehn Gebote in Zeiten des digitalen Wandel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21.
- Honecker, Martin. *Einführung in die theologische Ethik. Grundlagen und Grundbegriffe*. Berlin: Walter de Gruyter, 1990.
- _____. *Grundriß der Sozialethik*.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 Huber, Wolfgang.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 _____. “Rechtsethik.” In *Handbuch der evangelischen Ethik*. München: C. H. Beck, 2015, 125-193.
- Jähnichen, Traugott., Maaser, Wolfgang. *Die Ethik Martin Luthers*. Bielefeld: Luther Verlag, 2017.
- Karp, Alexander., Zamiska, Nicholas. *The Technological Republic*. 빅데이터닥터 역. 『기술공화국 선언』. 서울: 지식노마드, 2025.
- Luther, Martin. “Disputatio de homine.” In *Martin Luther Lateinisch-Deutsche Studienausgabe. Bd. I*.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6, 663-669.
- Sandel, Michael. *The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와이즈베리, 2020.

논문투고일: 2026년 07월 11일

심사개시일: 2026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6년 08월 04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 『고귀한 인류』에 나타난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와 그 극복 방안을 명료화하고, 그와 차별화된 개신교회의 문제 인식과 법윤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차이를 지닌 존엄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 존엄과 가치는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진리, 노동, 자유의 위축을 통해 경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인간 존엄성의 보호를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회칙의 내용과 상이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는 고유 인식과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나님 형상성과 칭의론을 토대로 인간 존엄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경계하며, 법을 통한 문제 극복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인식을 통해 법 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유 관점과 노력을 통해 개신교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가 심화된 상황 속에서 고귀한 인류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레오 14세, 교황 회칙, 인간 존엄성, 인공지능, 기독교윤리, 법윤리
